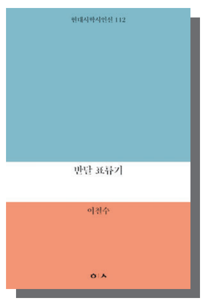
사물이 가진 힘과 아름다움의 회복력



반달 표류기
이철수 지음
현대시학

견결한 이미지 담긴 시집
낡은 인식·관념 걷어내
시구 속 사유의 깊이 눈길

"어흐, 또 허어연 한 어둠/작두날을 타던 아버지가 칠흑의 허공중에 눈을 뜨네/쌀뜨물처럼 몽롱한 잠을 게워낸 바다가/팔랑이는 쪽배같이 희멀건한 아버지를 밀고 가네/얼었다 녹았다 하는 도돌이의 엄동설한을 건너."('반달 표류기' 중에서)

지난 1998년 '문학춘추'를 통해 등단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한 이철수 시인의 새 시집 '반달 표류기'가 출간됐다.

첫 시집 '벼락을 먹은 당신이 있다'에서 현대인의 삶과 존재를 상처, 아픔, 그리움, 고통 등의 언어로 이끌어냈고 두 번째 시집 '무서운 밥'에서 살아내기의 고통 속에서도 사랑과 희망을 놓지 않는 이야기를 펼쳐냈던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사물이 가진 힘과 아름다움의 회복력을 보여준다.

이번 시집은 표제작인 '반달 표류기'를 포함해 63편의 시를 묶었다. 시인의 가장 큰 특징인 시집 속에서 읽히는 견결한 이미지다. 시구에서 보이는 생생한 이미지들은 사물들에 부여된 낡은 인식과 상투화된 관념을 걷어내고 사물이 가진 원래의 힘과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하게 만들어 준다. 시가 간결한 언어를 통해 쉽게 도달할 수 없는 사유의 깊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함축의 힘 때문이다. 이철수 시인의 시들에서 바로 이 점을 잘 확인할 수 있다.

표제작인 '반달 표류기'를 보면 시인의 아버지의 삶이 이 땅의 역사적 현실과 맞닿아 있다.

시인은 죽음을 눈앞에 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삶에 각인된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고 있다. 이 땅의 민초들이 겪었을 갖은 고초와 고통이 늙고 병들어 '푸석푸석한 아버지'의 몸에 배어있음을 본다. 그가 겪은 세월은 '도돌이의 엄동설한'이었다는 것이다. '피멍이 들고 시퍼런 혹등이 자라고 팅팅 불은 아버지'의 육신은 이제 달이 되어 아버지를 영원한 곳으로 데려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철수

황정산 시인(문학평론가)은 해설을 통해 "흔히 시인을 곡비로 비유한다. 남의 슬픔을 대신 울어주는 존재라는 것이다. 하지만 슬픔을 말하면서도 시인은 결코 울지 않는다. 슬픔을 떠올리는 또는 슬픔이 배어있는 사물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라고 적었다.

이어 "시인이 곡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이 사물들로 하여금 곡비가 되도록 만들고 있다. 이래야 진짜 시인이다. 그 시인이 바로 이철수 시인이다"고 이었다.

이철수 시인은 영암 출생으로 1998년 계간 '문학춘추'에서 신인상으로 등단, 문단에 이름을 알렸고 2012년 '문학세계' 신인상으로 시작 활동을 본격화했다. 시집으로 '벼락을 먹은 당신이 있다', '무서운 밥'이 있다.

/최진화 기자

미술사학자가 본 광주·전남 현대미술

시대를 품다,
광주현대미술제목
조인호 지음
상상창작소 봄

지역 예술적 문화자산
예술인 역사·삶 엮어

조인호 미술사학자가 광주·전남 지역 현대미술의 흐름과 전통을 비롯해 지역 예술적 문화자산과 예술인의 역사·삶의 자취를 미술사적 관점으로 한 데 묶어 '시대를 품다, 광주현대미술'을 출간했다.

책은 크게 3개의 부분으로 구성됐다. 첫 장은 광주·전남의 근현대기 지역 미술문화자산을 되짚어보는 '남도가 가꾸어 온 지역 미술문화 자산', 두 번째 장은 지역의 역사와 시대현실과 사회문화의 거울로써 미술계 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시대현실과 함께하는 미술', 세 번째 장은 광주미술의 진보성, 예술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문화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변화를 열어가는 우리 시대의 미술'로 나눠 담아냈다.

광주 미술현장을 총체적으로 기록하거나 대표적인 활동들만을 골라낸 것은 아니다. 저자가 직접 발로 뛰며 참여한 전시회나 창작활동, 연구논문, 학술행사 발제문, 미술지 기고문, 강의원고 가운데 예술사적 관점에서 중요한 지점이라 여기는 내용들을 우선해 엮었다.

조 미술사학자는 '시대를 품다, 광주현대미술' 발간을 통해 앞으로 광주·전남의 현대미술이 지역문화의 판도를 뒤바꿀 만큼 동세대 결속과 열의에 찬 활동들로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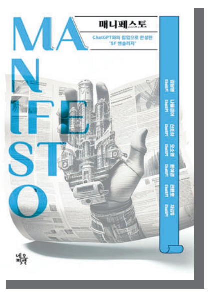
그는 하나하나 귀한 창작활동들이 부디 그들만의 개별세계가 아닌 공공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라나고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넓히는데 이 책이 소소한 미풍이라도 일으키길 바란다는 바람을 밝혔다.

조 미술사학자는 "지역의 역사와 시대 현실, 사회문화를 품어낸 예술인들의 값어치 있는 예술 활동이 사회적 여건에서 빛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 책을 통해 진중하고도 감각 있는 광주 현대미술의 가치를 제대로 접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 미술사학자는 1999년 설립한 광주미술문화연구소(www.gwangjuart.com) 대표로서 광주·전남 미술현장 관련 자료와 소식을 매개·공유하며, 미술문화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나라 기자

작가·챗GPT 공동 집필 소설집 나왔다



매니페스토
김달영 등 7인,
챗GPT 지음
네오픽션

전자책 공개·내달 3일 출간

출판계에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 관련 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소설가와 챗GPT가 공동 집필한 소설집이 처음 출간된다.

28일 출판사 자음과모음의 장르소설 브랜드 네오픽션에 따르면 작가 7명과 챗GPT가 함께 쓴 소설 일곱 편을 묶은 소설집 '매니페스토'(Manifesto)가 다음 달 3일 출간된다. 이날 예스24를 통해 먼저 공개한 전자책에는 7편의 영어 버전을 수록했으며 책 표지도 AI와 함께 디자인했다.

문학을 인간 작가만이 성취할 영역이라고 선을 긋기보다는 AI와 함께 작업하면서 시행착오를 통해 창작의 영역에서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 책을 펴냈다는 것이 출판사의 설명이다.

오픈AI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챗GPT-3.5와 협업한 인간 작가로는 김달영, 나플갱어, 신조하, 오소영, 윤여경, 전윤호, 채강D이다.

소설집에는 7편의 단편과 함께 작가의 협업 후기와 일지를 더해 그 과정을 공개했다.

작가들은 챗GPT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작업했다. 소설 작법의 단계를 물으며 계획을 세우거나, 어떤 소재를 다룰지 상의하기도 했다. 소설의 재료가 될 자료를 조사시키고, 문장을 더 유려하게 만들거나 길게 늘여달라고 요청하는 등 챗GPT를 다양하게 활용했다.

챗GPT는 부적절한 소재라며 문장 생성을 거부하기도 하고, 요구한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내놓거나,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고 작가들은 전했다.

그렇게 태어난 결과물은 에세이 형태의 다채로운 이야기로 완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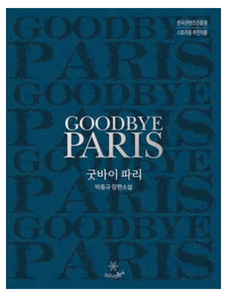
김달영의 '텅 빈 도시'는 황량한 풍경 속 비밀스러운 소녀가 사는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를 그렸다.

나플갱어의 '희망 위에 지어진 것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바다에 잠긴 인천 송도를 배경으로 했고, 신조하의 '매니페스토'는 지구에 불시착한 외계인과 공존하는 미래의 어느 날 신문에 기고된 '인간' 단체와 '외계인' 연합의 입장문을 옮겼다.

인간 작가와 챗GPT의 협업 과정은 4월 13일 KBS 1TV '다큐 인사이트'에서 공개된다.

/연합뉴스

새책 나왔어요



◇굿바이 파리='나는 북한 공작원이었다'라는 표제로 주요 월간지들이 보도했던 천재 예술가의 행로를 그린 소설. 지금은 잊혀가는 동백림사건에서 무고한 파리 예술인, 교포를 석방하게 한 파리 유학생들이 있었다. 군부와 맞서야 했던 그들은 평양 이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다. 소설은 파리 유학생들의 그 뒤 행적을 좇고 있다. 폴리콘커뮤니케이션즈.

◇한권으로 읽는 미생물 세계사=인류와 미생물·바이러스, 감염병과의 대결보다는 타협과 공존을 모색하는 책. 2020년 초에 발병해 3년 가까이 전 세계를 휩쓸었던 감염병 코로나19는 모든 분야에서 인류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향후 인류 역사의 진행 방향을 크게 바꿔놓았다. 말하자면 미생물·바이러스가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으며, 인류 역사의 물줄기마저 혁명적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일반 독자는 물론이고 의사·변호사·메디컬 전문가들에게 '등대' 역할을 기대한다. 사람과나무사이.

◇넌 안녕하니=아쿠타가와상 후보에 오르면서 문단에 데뷔한 일본의 소설가 소노 아야코의 에세이. 일상의 고단함과 문득문득 찾아오는 상실감을 겪는, 너무도 성실히 살아온 '나'에게 안부를 물어, 나를 직시할 수 있도록 이끈다. 내면으로부터 차오르는 공감 속에 마음의 힘을 채운다. 인생 선배로서 겪어온 시행착오의 내공이 스며있다. 책읽는고양이.

◇세계연극사=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연극학자인 저자들이 전 세계 드라마와 연극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시대별로 두드러지는 대표적 드라마 장르와 공연 작품, 무대 형식이나 극장 운영 등에 관한 배경지식을 개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꾸몄다. 저자들이 서문에서 "고교생, 대학생 및 연극을 애호하는 일반인을 위한 입문서로 기획해 난해한 이론의 나열과 전문적 논쟁과 복잡한 각주의 명기를 생략했다"고 밝힌 바대로 이해하기 쉽게 쓰인 것은 이 책의 큰 장점이다. 한울엠플러스.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시·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장흥지사	010-3613-6114
목포(갑)	010-3272-2765	강진지사	010-6646-1241
목포(을)	010-3635-6777	해남지사	010-8181-2627
여수지사	010-8648-1236	영암지사	010-4624-8409
순천지사	010-2547-7890	무안지사	010-3621-8989
나주(갑)	010-7706-2410	함평지사	010-3600-0500
나주(을)	010-3713-7458	영광지사	010-8666-2882
담양지사	010-8004-9885	장성지사	010-3666-1300
곡성지사	010-6764-6100	완도지사	010-5619-7020
구례지사	010-6636-3039	진도지사	010-3624-4777
고흥지사	010-9151-2828	신안지사	010-4627-1472
화순지사	010-3100-0386	보성지사	010-5259-6441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98 (사동)
기사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i1000@hanmail.net